

시론

AI시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인간주체성'과 교육



김춘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을 빠르게 흡수하는 시대다.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정교한 결과를 쏟아내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과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운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제 우리는 AI와 대립하기보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공존의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인간과 AI가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Co-evolution)' 모델은 좋은 나침반이 된다. 그러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무조건적인 기술 맹신은 금물이다. AI는 효율성을 최적화할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묻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편향을 간파하는 '비판적 사고'와 기술 이면의 윤리적 문제를 짚어내는 '도덕적 판단력'이라는 지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인간 고유의 역량 총체인 'H-Factor(Human Factor)'이다. 이는 공감, 창의적 질문력, 맥락적 이해력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가치가 급상승하는 '내구성'역

량'이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그럴싸하게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실존적인 정서적 연결은 불가능하며, 수많은 정답 앞에서 '어떤 질문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정의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 교수 역시 AI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무기로 "기계 가 복제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조하며, 미래의 일자리가 창의성, 독립적 사고, 대인 관계 역량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기술의 편리함에 함몰되지 않고 '기술적 주체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로마 교황청 문화교육부 AI 연구 그룹의 저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주체성 회복>에서 경고하듯, '의식적 내면성'이 결여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인간의 판단력과 자유 의지가 유도되고 조작당한다면 인간은 기술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전체 음악의 방향을 조율하듯 AI라는 유능한 비서를 부리는 '지휘자로서의 주체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반복적인 작업은 AI에 위임하되, 가치 판단과 윤리적 감시라는 영역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모든 해법은 '교육'으로 귀결된다. 격변의 시대일수록 교육은 지식 전수를 넘어 인간다운 태도를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대학에서 'AI와 평생교육'을 강의하며 수강생들과 함께 나누은 고민 역시 학습자의 H-Factor 강화와 기술적 주체성 함양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적 질문력을 키우는 독서와 발표·토론 중심 교육과 더불어 AI 리터러시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 혁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시수 인정 등 제도적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에서도 단순히 AI 툴의 사용법을 익히는 기능 교육을 넘어,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유연성'을 길러주고, 스스로 나침반을 들고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개척할 '주체적 역량'을 수립해 줘야 한다. 평생학습은 경험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삶의 도덕적 가치를 성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스마트기기와 거리를 두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디지털 안식(Digital Detox)'의 가치를 가르치고, 아날로그적 경험을 설계하는 습관을 지원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은 약점이 아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공감과 의미 추구가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 실현에 있다. 교육 현장의 인간 고유의 H-Factor를 버려내고 주체적인 기술 지휘자를 길러내는 산실이 될 때,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히 항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계가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과연 기계와 구별되는 '가장 인간다운 내면'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문화난장

쓰개치마를 쓰고 걷는 현대인들



김현희 전시 기획자·작가

아침이면 집 앞 산책로를 걷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책로 풍경이 달라진다. 봄에는 꽃이 예쁘게 피어난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점차 햇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린다. 늘 풍경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꽃도 나무도 아닌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숨겨진,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넓은 행의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쓴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이들은 대개 눈만 남겨두고 얼굴을 가린 채 걷는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름이면 흔히 만나는 풍경이 됐다. 사실 필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얼굴을 가린 사람들 중 한 사람에 속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모자 하나만 챙겨 쓰면 바로 집을 나서 걸을 수 있다. 이점이 많다. 머리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굳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

으로 이웃을 만날 수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얼굴을 조금 가렸을 뿐인데도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 마치 나만의 작은 공간을 두르고 세상 속을 걷는 기분이다. 얼굴을 가린 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풍경 하나가 떠올랐다. 집 밖으로 외출할 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모습이다. 물론 지금의 모자와 마스크를 쓰개치마와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시대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만큼은 어딘가 닮아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쓰개치마를 쓰지 않는다. 대신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선택한다. 강한 햇빛을 피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침 산책길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을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면 세상과 적당한 거리가 생긴다.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긴다. 편안함 그 자체가 온전히 나를 휘감는다.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거리에서는 얼굴을 감추고 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하루를 세상과 나눈다. 여행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기록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글로 남긴다. 얼굴을 가려도 흔적은 남기고 싶은 마음. 흔

자 있고 싶으면서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이 양가적인 마음에 살짝 혼란스러움을 느끼지만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을 조금씩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조선의 쓰개치마는 예법과 신분의 경계였다. 그에 반해 오늘의 모자와 마스크는 어쩌면 개인의 경계인지도 모르겠다. 예전에는 사회가 정한 선 안에서 자신을 가렸다면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경계를 만든다. 그렇다고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을 올리고, 글 한 줄을 남기며 다시 세상과 연결되며 밖으로 뛰쳐나온다. 시대는 변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린다. 그렇다고 꿈꿨던 자유만은 아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나란 누군가를 한껏 드러내며 살아간다. 언제나처럼 산책로에는 눈만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넘치게 걸고 있다. 저마다의 쓰개치마를 두른 채, 조선의 여인들에게 쓰개치마가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쓰개치마가 있다. 쓰개치마를 쓰고 얼굴을 가리면서도 또 온전히 뒤에 숨지 않는 그 이중성의 모습에 이르러러한 생각이 뒤얽힌다. 언제든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어하는 쓰개치마를 쓴 현대인들, 숨김과 소통의 이중주를 타며 오늘도 산책로를 따라따라 걷는다.

독자투고

마약 '시민의 눈'이 최고의 방어벽이다



신지호

최근 대낮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남성의 영상이 SNS에 퍼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 주변의 일로만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로 우리 아이들의 통 학교와 일상 공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국

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의 마약 범죄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치밀하게 진화했다. 도시 주택가뿐만 아니라 단속의 눈길이 닿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한적한 공터나 펜션, 마을 외곽 지역까지 유통 경로가 넓어지고 있어 결코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특별 단속

을 전개하며 치안망을 넓히고 있지만, 일상 속에 숨어든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제보와 공동체의 감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주택가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수상한 물건을 숨겨두고 가는 행위를 목격한다면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마약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앙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감시의 끈을 단단히 조여야 할 때다. <보성경찰서 범죄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통합시 국가지원 20조 경제효과 극대화 고민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별법에는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미래 재원으로 온전히 쓰여야 한다. 특히 지역 경제에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특별시 출범에 따른 특례가 실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총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4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광주·전남에는 생산 17조원(전국의 47.2%), 고용유발은 2만3천명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남아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도가 생산효과와 58.9%를 지역 내로 흡수하는 것과 비교된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나 설비 투자에 쏟는다면 단기 부양 효과는 크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특별시 재정 통합과 특례 확보, 4년 간 20조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정기

획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치와 성장 동력 밀집을 수렴할 기업유치TF와 함께 쌍두마차로 운영 중이다. 민 당선자는 80%인 16조원은 AI·반도체·재생에너지·미래모빌리티 등 초첨단 분야에 역점을 뒀 투자하고, 나머지는 20%는 인재 양성과 복지·돌봄, 농어촌·섬 지역 지원, 기후환경 대응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골고루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가지원 인센티브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지역 미래를 담보할 종자돈이다. 지역별 나눠먹기식 일회성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 대기업·영커기업 부재와 청년인구 유출을 근본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세미나에서 제안된 AI·모빌리티(광주권), 이차전지·첨단화학(전남 동부권),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서부권) 등 거점별 권역 분담을 통한 성장 구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통합 초기단계 인재 육성, 연구인프라, 정주 여건 확충 등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게 중요해졌다. 선택과 집중 대원칙 아래 장기 투자 로드맵을 설계하는 등 체계적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갑질 사실로, 전근대적 소방 문화 도마위에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점검한 결과, 희식 및 유족, 열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지난 15개월간 소속 부서 내 회식에 총 24회 참석했으며, 일부는 다음 날 새벽까지 '후래차 삼배', '파도타기' 등으로 폭탄주를 원샷에 마셔야 했다. 또 '시장과 공장 사이에 앉아서' 등의 착석과 함께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의 부적절한 호칭을 강요당했다. 아울러 주말까지 서장 등의 퇴임식 준비, 부친상·빙방상에서의 상차림·삼부름, 상급자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등 다양한 사적 업무까지 도맡았다. 하지만 해당기관 모두가 유가족 등의 검찰 요구를 묵살하고 해태했다. 광산소방서는 2025년 7월 이후의 공식 회식 횟수(3회) 및 피해자의 업무 태도 등만 담당 과장 등에게 파악 후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남자친구의 문제 제기 뒤에도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이유로 5개월

간 방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동료를 사지로 모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최악의 갑질'이라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이번엔 규정 위반이 확인된 비위 공직자는 17명에 달했으며,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예고대로 최태치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한 인권 보호 실태는 또 어떤가. 관행이라는 구실을 앞세웠으나 매우 부적절했다. 인격 살인으로 봐야 한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여기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이 낡은 권위주의와 침묵 속에서 신음하며 지쳐가고 있었다. 늦게라도 고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철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연필 다카시 광장

사랑싸움

권준영

가위바위보 남자 먼저 바위 내고 살짝 웃는다 여자가 가위 내며 따라 웃는다



\* 시작노트 사랑하는 사이라고 항상 좋지만 할까요? 깨를 부는 사이라든 때로는 의견이 갈리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서운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사진 속 남녀에게도 작은 다툼이 생겼나 봅니다.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다가 얼굴색이 살짝 변할 무렵 남자가 문득 주먹을 내밉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는 거였군요. 조금 유치한 듯하지만 나름 깔끔한 해결 방안 같습니다. 싸움이 불었으니 일단 이기는 게 상책이겠지요? 그런데 사랑싸움은 전쟁과 달라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건가 봅니다. 가위 바위 보, 남자가 그대로 주먹을 내면 채 웃습니다. 패를 먼저 내 주는 건 저주겠다는 심사지요. 이제 여자는 보만 내면 이깁니다. 그런데 여자가 보가 아닌 가위를 내면요. 여자의 선택도 지는 쪽이었군요. 패자는 없고 승자만 남았습니다. 사랑싸움 끝, 웃음꽃 덕분에 세상이 환합니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1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